

연해주한인회
제2회 정기 이사회
의 사 록

2019.06.28

연 해 주 한 인 회

2019년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결과

일 시 :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12:30

장 소 : 레스토랑 ‘더 마린’

출석이사 : 김경재 이현수 이창준 김주희 안철환 윤미경 문정필 곽형필

위임이사 : 길영근 윤창현 이용선

의장 김경재 이사는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아래 의안 심의에 들어간다.

<제 1호 의안 (보고사항) : 2019년 상반기 사업 결과 보고>

의장이 2019년 상반기 사업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보고하다

- 아 래 -

가. 박환교수와 함께하는 역사콘서트 및 역사기행

- 3.1 운동 100주년 기념 <러시아 지역의 3.1운동과 블라디보스토크>
- 박환 교수와 함께 걷다 - 블라디보스토크

나. 신한촌 기념비 정비사업 실시

- 한인회의 모금 사업으로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던 신한촌 기념비 정비사업(조경) 실시
- 신한촌 기념비 관련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이사들 간에 충분히 공유하고,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

다. 그 외의 행사 실시(설날 대잔치, 지역사회봉사(루스키섬 청소) 등)

<제 2호 의안 (보고사항) : 2019년 하반기 사업 계획 보고>

의장이 2019년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보고하다

- 아 래 -

가. 연해주 한인회 하반기 역사기행

- 하반기 역사기행 장소 및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이사들 간에 논의
- 역사기행과 함께 가을소풍 연계 필요성에 대해 논의

나. 한인회장 선거 선관위 구성

- 선관위 구성관련하여 추천인사, 시기 등에 대해 논의

연해주한인회 제 2차 정기 이사회회의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석이사는 아래와 같이 서명(날인)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한인회 사무국에 비치함

의장 김 경 재

부의장 윤 미 경

총무이사 안 철 환

이 사 곽 형 필

이 사 김 주 희

이 사 문 정 필

이 사 이 현 수

이 사 이 창 준

2019 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
장소 : 레스토랑 '더 마린'

일시 : 2019년 6월 28일 12:20분

참석 : 김경재, 곽형필, 이현수, 문정필, 김주희, 이창준, 안철환, 윤미경

위임 : 이용선, 길영근, 윤창현

참관 : 김택동, 조래연

<회의요약>

가. 2019 상반기 사업결과 보고

1] 2019년 상반기 사업결과

-블라디보스토크 역사기행은 외교부 지원으로 연 2회 진행

-사업보고에서 누락된 부분: 신한촌 기념비 정비사업

-이석배 대사님의 제안으로 한인회에서 모금사업을 진행한 후 정비사업을 진행

->약 \$4,000 가량 모금하였고 정비사업에 \$3,000 가량 지출함

-해당 내용은 회원들에게 모금액 및 지출액을 이메일로 발송 및 이사회에 추후 별도 보고 예정임

-정비사업 후 시찰결과 주변 정리 (풀,etc) 등이 다소 미흡하여 한인회에서 주최가 되어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

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옴 (이에 대한 비용으로 월 5,000p.의 지출이 예상됨)

- 현재 관리 주최는 '이 베체슬라브'이며, 영사관에서 관리 비용을 주고 있음

-영사관에서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파악한 후, 관리하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면

'이 베체슬라브'에게 이야기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복지출을 막는 방법임

- 따라서 '이 베체슬라브' 및 영사관측과 협의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요구됨
- 모금액 중 남은 금액은 특별사업경비로 전환하여 한인회비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
- 특별사업경비는 이 외에 추가로 고양시에서 지불한 \$ 10,000이 있음
- 해당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비용을 모금할 필요성이 있음

2] 관리에 대한 이슈

- 신한촌기념비는 비석을 세워도 된다는 허가는 난 상태이나 비석을 등록하는 데 있어 당시 신청주최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짐
- 따라서 불법구조물로 인식되어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철거가능한 상황임
-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영사관과 한인회에서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
- 비석은 불법이 아니나 기념비 주소가 기념비 앞 학교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의 부지이며 해당부지의 사용권한은 학교에 있음
- 현재 주정부의 부지이므로 사용권 임대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희박한 상황임

3] 상황해결을 위한 의견공유

- 당시의 해당서류들을 정비하고 주최를 다시 세워 등록을 다시 진행해 보자는 의견
- 부지확보가 시급한 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
- 관리주최에 관하여 영사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
-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해주 정부와 해결을 해야 하나, 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(소통 착오로 혹시 철거가 될까 우려되는 부분)

나. 2019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

1] 연해주 하반기 역사기행

-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신청 완료됨
- 역사기행의 장소는 크라스키노로 생각 중이었으나 그간 진행되었던 행사들이 독립운동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고 크라스키노가 볼거리가 많지 않다는 의견

- 금번에는 역사기행의 주제를 발해에 초점을 맞추어, 이에 따른 경우 장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
- 장소를 빠르티잔스크로 정해 하반기 가을소풍과 역사기행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
- 빠르티잔스크는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
- 크라스키노를 간다면 안중근 의사 단지비, 유니베라 게스트 하우스, 핫산 기념비 전망대를 보고 복귀 길에 바라바시 농장을 둘러 체험시간 및 배추 구매를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
- 임원진에서 두가지 안 (핫산군 과 빠르티잔스크) 을 검토해 제안하면 3차 이사회 전 카톡으로 의견 수렴예정임

2] 회장선거 관련

- 3분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(이하 선관위)를 꾸릴 예정이었으나 시간적으로 빠듯할 것으로 생각되어
지금 선관위를 꾸리는 것으로 합의함
- 3분기 이사회 시작시 바로 선관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
- 예전에 경험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선관위를 꾸리고자 함
- 윤미경 이사께서 선관위 경험이 있어, 윤미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관위 구성
- 지상사 협의회에서 1분 추천 (7월 말까지), 개인 사업자중 1명 구성 - 박재성 사장 추천함